

[취재요청]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1100만 비정규직 촛불 행진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고인이 들었던 피켓 들고 행진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12월 21일(금) 17:00 서울노동청→종로→청와대 행진 후 노숙농성

-
- 발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 민주노총
 - 수신 귀 언론사
 - 일시/장소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5시 서울노동청
 - 문의 김수역 010-9792-4788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한대식 010-4142-3122 (공공운수노조)
김혜진 010-4538-005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은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1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故김용균님이 남긴 컵라면과 손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일에는 비정규직 대표단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 서고, 죽음을 멈추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비정규직, 청년, 시민들이 함께 행진합니다.故김용균님이 들었던 피켓을 들고,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마음으로 청와대까지 걸습니다. 고인은 만나지 못했지만, 또다른 김용균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3.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진행하고 22일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합니다.
4. 비정규직의 삶을 바꾸고 싶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던故김용균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합니다. 기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민주노총

<첨부자료1> 전체 일정표, <첨부자료2> 100인 명단, <첨부자료3> 웹자보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1100만 비정규직 촛불 행진

1. 행진 시작

- 일시·장소 : 12월21일(금) 17시 노동청 앞
- 프로그램 : 시작발언, 민중의례, 여는발언, 일정공유, 행진출발

2. 행진

- 1코스 : 노동청 - 종로2가 - 종각 - 광화문사거리
- 2코스 : 노동청 - 을지로2가 - 을지로입구 - 광고 - 청계천로 - 일민미술관 - 광화문사거리

3.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100과 만남시다”

- 일시·장소 : 12월21일(금) 19시 청와대 사랑채 앞
- 대통령 면담 요청

4. “내가 김용균이다” 촛불 추모제

- 일시·장소 : 12월21일(금) 20시 청와대 사랑채 앞
- 프로그램 : 참가단위 발언, 공연 등

5. 구의역 김군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간담회

- 일시·장소 : 12월21일(금) 22-24시 청와대 사랑채 앞
- 프로그램 : 구의역 김군 동료들과의 간담회 등

6. 22일(토) 일정

- 07:00 기상
- 08:00 아침식사
- 09:00 오전 결의대회
- 10:00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는 비정규직 100인의 이야기
- 12:00 범국민촛불행진시 사용할 상징물 만들기
- 13:00 파이낸스로 행진
- 13:30 점심식사
- 15:00 민주노총 및 범국민추모제 결의대회

<첨부자료 2> 비정규직 대표 100인 명단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 비정규직 100인 명단

(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비정규·인권 활동가 6명)

<가나다순>

1. 강동인 현대위아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 광경준 화성시 소각장
3. 구슬아 대학원생 조교
4. 권영국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변호사
5. 기선 인권활동가
6. 김경희 방과후강사 특수고용노동자
7. 김광중 예술강사
8. 김기완 마트노동자
9. 김동성 조선소 사내하청
10. 김두영 방송 드라마 스태프
11. 김생수 광고 테크노밸리
12. 김선영 자동차 판매노동자
13. 김성련 보라매병원 환경미화
14. 김수역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5. 김영곤 대학 비정규강사
16. 김영민 수출입은행 시설관리
17. 김영태 퀵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
18. 김영희 춘천환경 청소노동자
19. 김용철 키스트 특수경비
20. 김정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1. 김정한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22. 김주환 대리운전 노동자
23. 김진 예술강사
24. 김태일 대한항공 비행기청소
25. 김현준 한국마사회 경비
26. 김혜진 비정규활동가
27. 김화민 화성시 학교상담사
28. 나승안 철도매점 특수고용노동자
29. 남용진 산업은행 승강기
30. 명숙 인권활동가

31.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성악가
32. 문석호 구례자연드림파크
33. 문혜진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
34. 민석준 연극치료사
35. 박구용 대리운전 노동자
36. 박대성 인천공항 보안검색
37. 박순향 서산톨게이트 수납원
38. 박순화 카이스트 청소
39. 박유종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0. 박정식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
41. 박정훈 라이더
42. 박혜성 기간제교사
43. 박희주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44. 서광수 현대위아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 서재천 중소기업진흥공사파트너스 비정규직
46. 서정남 현대모비스 광주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7. 소영호 건설일용 노동자
48. 손창식 디지털과학기술원 연구원
49. 송경동 시인
50. 신재탁 KT상용직 선로배선
51. 신정웅 맥도날드 크루
52. 심인호 동희오토 사내하청
53. 안명자 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
54. 안명희 출판노동자
55. 안병호 영화산업 촬영스텝
56. 안재연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7. 양태인 현대모비스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 양홍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재
59. 오세중 보험설계사
60. 오수영 학습지교사
61. 원우석 서울시공무직 하수담당
62. 유아 재택집배원
63. 유희희 기륭전자
64. 윤성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
65. 윤지선 인권활동가
66. 윤호상 현대위아 안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7. 이경자 연세대학교 환경미화
68. 이동민 무용인

69. 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
70. 이선인 비정규직 노동자
71.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72. 이연순 서울대병원 환경미화
73. 이영철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74.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
75. 이주용 한국잡월드 군체험강사
76. 이종원 동서울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77. 이진욱 학교 방과후 강사
78. 이태성 발전소 운영정비
79. 임도근 로컬크린환경 재활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0. 장성기 동우공영 시설관리
81. 전문희 비정규직 코레일 승무원
82. 정범채 인터넷설치 SK수리기사
83. 정용식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지회
84. 정인택 비정규직 노동자
85. 정준현 위아 광주공장 하청 노동자
86. 제유곤 인터넷설치 LG수리기사
87. 조현철 예수회 신부
88. 진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89. 차현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90. 최성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1. 최진영 장애인노동자
92. 태운호 쌍용양회 비정규직
93. 함형길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4. 현린 사진작가
95. 홍승완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 노동자
96.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시설관리
97. 홍철희 연극인
98. 황건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9. 황미란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100.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



삽화 마법사님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노동약법 없애고!
불법파견책임자 쫓내고!
정규직전환은 직접고용으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18. 12. 21(금) 17시, 서울노동청 → 청와대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던 故 김용균 님께 다짐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반드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문의_김수익(010-9792-4788) / 한대식 (010-4142-3122)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